

주택금융 Insight

Biweekly

Pick of the Week

국고채 2년물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Major Issue

리보(LIBOR) 대체이슈 및 과제

“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



Pick of the Week

국고채 2년물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 최근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추가로 정례(매월) 발행하겠다고 밝힘
- ❖ 중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대체재 역할을 하던 통안채 2년물의 발행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 등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 존재

■ 한국 국채시장은 늘어난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급부담에 따라 장단기·기준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됨

-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로 '19년(101조 7천억원) 대비 72조 8천억원 늘어난 174조 5천억원 수준
 -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21년 국고채 물량은 17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

(단위 : 조원)	2019년	2020년 발행한도				
		본예산	1차	2차	3차	4차 추경
총발행	101.7	130.2	140.6	144.1	167.0	174.5

※ 자료 : 기획재정부

-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최근 재정정책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국고채 발행량은 일정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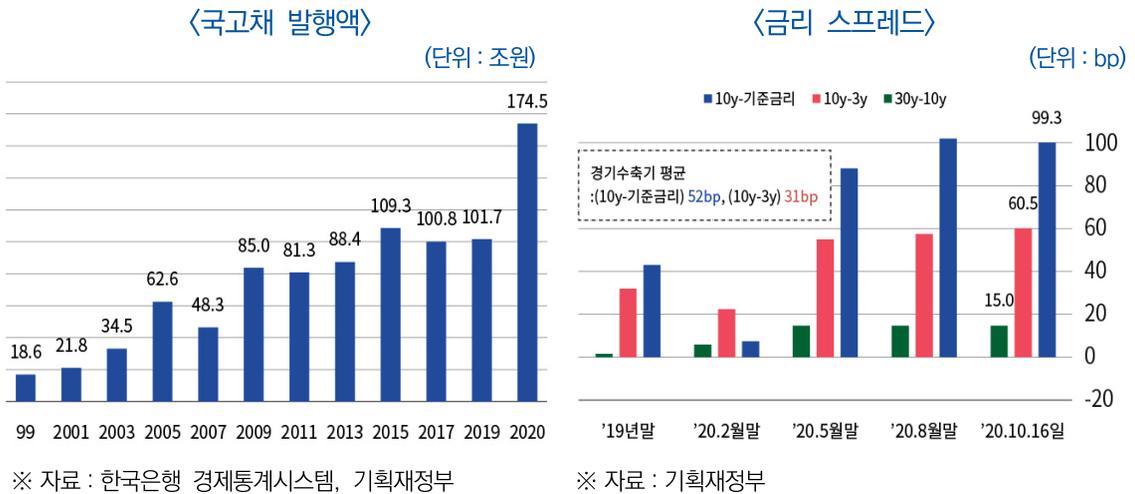
국고채권(Korea Treasury Bond)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로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 PD)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발행업무를 수행함
- 현재 발행되는 국고채권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6종류가 있으며, 각 만기구조별 금리는 각종 채권의 지표금리역할을 하고 있음

※ 자료 : 한국은행

- 국채 수급이슈 등으로 인해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10년 만기~3년 만기)스프레드 및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됨
 - 보통 경기 호황 시에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불황임에도 장기물 매수 기피 심리에 따른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스프레드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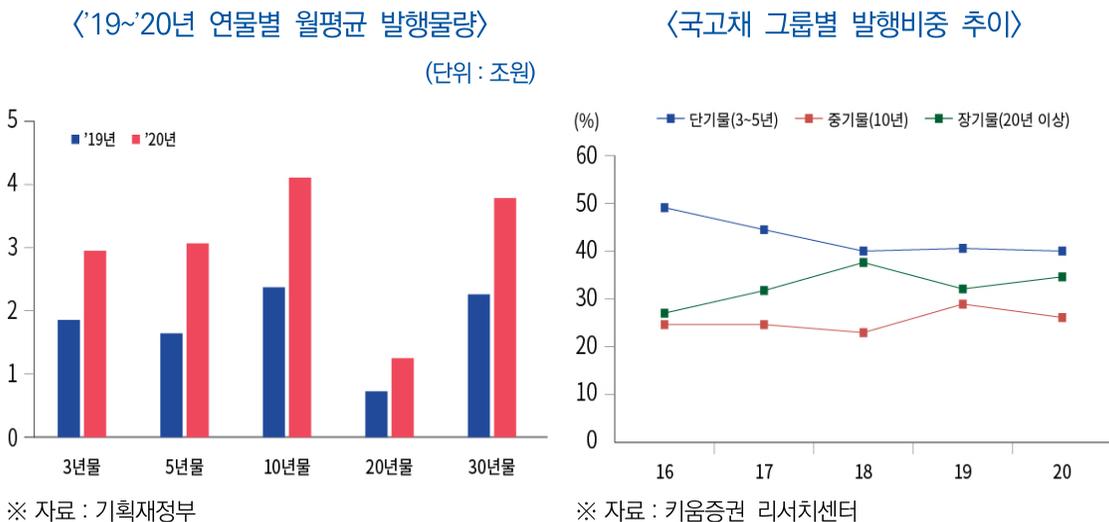
- 한국은행이 채권수급 불균형과 시장금리 급변동 완화를 위해 총 5조원 내외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계획을 밝혔으나, 여전히 일정 금리 스프레드는 유지되고 있음



■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는 '21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추가로 정례(매월) 발행하겠다고 밝힘

- 발행물량은 각 연물별 발행비중, 단기 채권시장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
- 국고채 구성 변경, 연물별 시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룹별·연물별 발행비중 조정을 검토하되,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

- '20년 그룹별 발행비중 목표(%) : (3·5년) 40±5 (10년) 25±5 (20년 이상) 35±5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1년짜리 단기국채는 물론 만기 1년 이하의 국채도 발행하고 있음

〈주요국 국채 종류〉

	단기국채		중기국채		장기국채	
	종류	만기*	종류	만기	종류	만기
미국	Treasury Bills	1년 미만	Treasury Notes	2·3·5·7·10년	Treasury Bonds	30년
일본	JGB 단기채	6개월, 1년	JGB 중기채	2·5년	JGB (초)장기채	10·15·20·30년
캐나다	TreasuryBills (시장성국채)	1년 미만	시장성 국채	2·3·5년	시장성 국채	10·30·50년
이탈리아	BOTs	3·6개월, 1년	CTZs, CCTs, BTPs	2년, 7년, 3·5년	BTPs	10·15·30년
영국	Treasury Bills	1년 이하	Gilt-Edged Bonds	3·7년 등	Gilt-Edged Bonds	10·15·50년 등
독일	Bubills	6개월, 1년	Schaetze, Bobles	2년, 5년	Bunds	10·30년
프랑스	BTFs	1년 미만	BTANs, OAT	2·5년, 7~50년	OAT	7~50년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위의 표에서는 단기국채 구분기준을 1년으로 하였으나, 2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로 분류하기도 함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3·5년 만기 국채의 발행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장기구간의 수급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

-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미국·영국의 경우 만기 1년 이하 단기물이 전체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5.7%, 70.1%(2019년 기준)인 것에 비해 한국은 3년·5년물도 약 40%로 낮은 수준

국고채 2년물 발행이 국채시장의 수급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체재인 통안채 2년물 발행이 축소될 거라는 예측 등 관심이 커짐

국고채 2년물의 신규 발행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장기국채를 금리수준이 낮은 단기국채로 전환함으로써 정부는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기국채는 발행주기가 짧아 국고채 수급관리를 함에 있어 발행과 상환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정부의 조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음(20년 9월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물 0.908%, 10년물 1.5%, 30년물 1.639% 수준)

또한, 과도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통안채의 만기, 발행량, 제도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체재인 통안채 2년물 축소 여부에도 관심 증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Monetary Stabilization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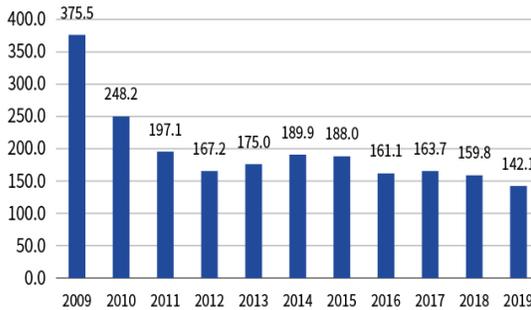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
-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
-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공모발행의 경우 2년 이내

※ 자료 :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채시장의 규모가 작아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외환보유액 확충이 필요해 통안채의 발행을 확대해옴
- 그러나 현재는 국채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과거처럼 급격하게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요인이 감소하여 통안채 발행 및 잔액을 축소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고채 2년물 발행과 함께 통안채 2년물 발행이 축소되지 않을 경우, 채권 시장에 공급압력으로 작용하여 단기금리 상승 우려가 있음

〈통화안정증권 연간 발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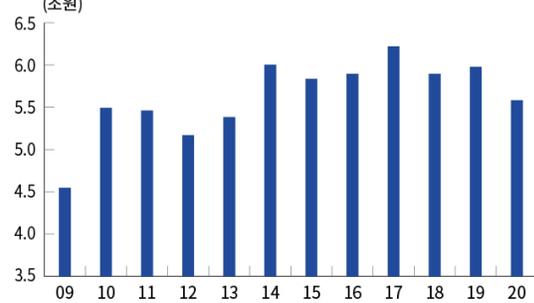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통안채 2년물 연평균 발행규모〉

(조원)



※ 자료 : 한국투자증권

- 더불어 단기국고채는 우수한 지표금리 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지표금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수익률곡선(Yield curve)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융시장을 반영하는 지표금리로 활용할 단기국고채가 부재하여 대체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 CD금리 등을 활용하였으나 기능에 한계 존재
 - 통안채의 경우 무위험자산이지만 통화정책의 수단이므로 발행규모의 변동폭이 크고, 국고채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지표금리 요건(안정성, 유동성, 신뢰성) 미충족
- 장기국채의 수급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MBS 장기물 발행금리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MBS 만기별 발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필요

Major Issue

리보(LIBOR) 대체이슈 및 과제

- ❖ 글로벌 지표금리로서 적합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리보에 대응 주요국들은 대체금리를 개발 중으로서 신규지표 선정배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 국내 금융당국은 CD금리의 개선과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위험지표 금리를 개발 중으로서 시장참가자들에게 복수지표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중요한 과제임

1. 리보(LIBOR) 대체 논의배경

▣ 리보는 글로벌 은행간 단기 무담보의 도매자금 차입 금리로 정의됨

- 은행간 자금비용에 대한 벤치마크 인덱스 제공 목적으로 출범하여 세계적으로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상품의 기준금리로 사용됨
 - 달러(美), 파운드(英), 유로(EU), 엔(日), 프랑(스위스)의 5개 통화와, 1일~12개월의 7개 만기로 산출되어 총 35개의 리보가 있음
 - * 각 국은 리보와 별개로 고유 지표금리를 갖고 있는데, EU의 EURIBOR, 일본의 TOBOR, 홍콩의 HIBOR, 싱가포르의 SIBOR, 그리고 한국의 CD금리 등이 이에 해당
- USD리보의 경우 매 영업일 16개 은행(패널)들이 호가 기반의 은행간 차입금리를 제출하며 상하위를 제외한 8개 기관의 금리평균이 공시됨
 - 은행간 대차거래가 없는 은행은 무담보 단기차입 수단인 발행어음(CP)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발행금리를 차입금리로 제출
 - 영업일 CP·CD 발행이 없는 은행은 결국 자행이 판단하는 적정금리를 차입금리로 제출

〈리보(LIBOR) 역사의 타임라인〉

- 1960년대 역외달러 수요증가로 해외은행 지점이 많던 런던에서 연방보험 및 세금적용을 받지 않는 비규제금융에 대한 지표금리를 필요로 함
- 1969년 컨소시엄 은행이 대출(Syndicated Loan)에 대한 변동금리를 매번 유선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기로 했고, 이는 리보의 시초가 됨

(다음장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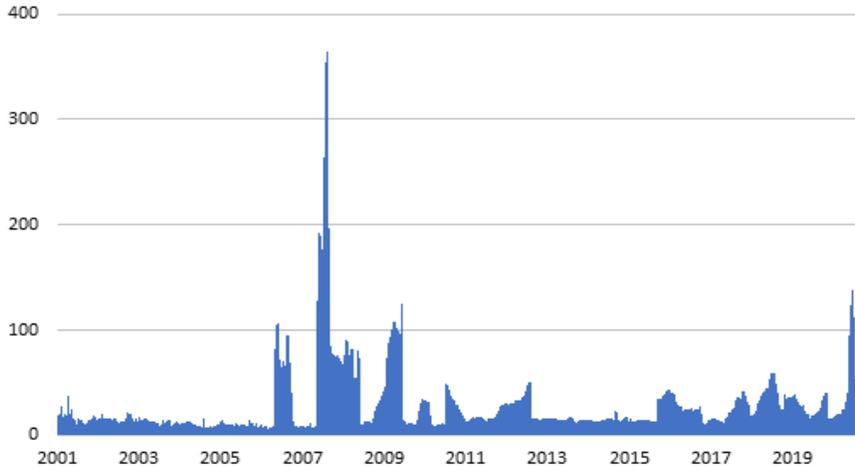
- 대고객 대출금리 벤치마크로 시작하였으나 은행간 신용차입(Inter-bank)이 늘며 은행신용을 반영하는 차입(Offered)금리로 자리잡음
- 파생상품거래 증가로 벤치마크로서의 리보 수요는 더욱 늘어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은행연합회(BBA)가 1986년 리보 공시를 시작
- BBA 공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는 리보와 유사한 호가지표를 만들었고 시장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1996년부터 리보를 지표금리로 도입
- 2012년 6월 풋은행 바클레이는 리보조작 사실이 확인되며 \$4.5억 벌금을 부과받았고 리보의 대표성은 크게 훼손됨
- 투명성과 독립적 지위 강화를 위해 2014년 리보 기관이 BBA에서 뉴욕거래소 모회사인 미국 법인 ICE로 이관
- 개선노력에 불구하고 은행간 거래량이 없어지며 2017년 7월 英 금융감독청(FCA)은 2022년경부터 은행들의 리보금리에 대한 호가 제출 의무는 없다고 선언
- 2019년 7월 FCA는 2022년 1월부터 리보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장참가자들의 리보거래 축소와 함께 대체 관련 준비를 촉구

■ 금융위기 이후 은행간 자금시장 규모 축소, 리보의 변동성 증가 및 조작 스캔들 등으로 리보 퇴출 논의가 진행

- 美 주요은행들의 3개월 만기 도매자금 거래규모는 일일 약 \$50억으로서 파생상품등 USD리보를 준거금리로 하는 \$200조 거래량 보다 매우 낮음
 - 연준은 통화정책 강화를 위해 '08.4분기부터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IOER)를 지급해줌에 따라 은행은 여유자금 발생시 연준에 예치, 따라서 은행간 거래는 급감
 - 은행의 신용위험 증가와 달러 유동성에 따른 리보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리보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지표금리 역할에 한계 노출
 - 은행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를 나타내는 Libor-OIS 스프레드가 위기 시 상승할 경우, 개별 차주는 본인 신용등급 변동이 없더라도 차입비용이 증가됨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리보+275bp인 경우 차주의 신용위험은 우량은행보다 275bp 만큼 높다는 것인데, 위기 시 은행 신용위험 상승으로 차주의 차입비용도 증가
- * OIS(Overnight Index Swap Rate)는 Federal Funds Rate와 같은 1일 무위험 수익률로서 Libor-OIS 스프레드 상승은 은행의 신용위험 증가 등을 나타냄

〈3개월 USD리보-OIS 스프레드 추이〉

(단위: bp)



※ 자료 : Bloomberg, 2007~08년 금융위기 및 최근 COVID-19 관련 상승

● 설문조사 방식의 금리결정구조 한계로 은행들은 자행 이해관계에 따라 호가를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2012년 6월 리보조작 사건이 표면화됨

- (Signal Effect) 은행들이 제출하는 호가금리가 투명히 공개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앞두고 자행의 자금난을 숨기기 위해 낮은 호가금리를 제출
- 리보연동 금리스왑상품을 보유한 은행 딜러는 내부 호가담당자 및 브로커와 연계해 금리조정일을 앞두고 포지션에 유리한 호가가 형성되도록 조작

- 고정금리(IRS)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리보)를 지불하는 은행(딜러)은 낮은 호가를 제출할 유인이 있고, 반대 포지션의 은행은 높게 책정하려 할 수 있음

* 리보호가 제출은행의 스왑거래 상대방이 리보호가 제출의무가 없는 기관인 경우 이해관계가 상계되지 않아 금리조작의 영향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메일 등을 통해 딜러는 브로커에게 큰 금액의 계약체결을 약속하고 브로커는 거래금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리보조작에 가담
- 계약금액이 50억 달러인 경우 1bp 조작 시 12만 5천달러의 이익 발생
(5,000,000,000 × 1bp × 1/4(3개월 단위 거래)= \$125,000)

▣ 2021년 이후 리보의 대표성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경우 전환준비가 부족한 시장참가자의 경우 리보의 변동성 상승 및 무변동성 위험에 노출

● ICE는 2022년부터 최소 5개 이상 은행이 호가를 제출하면 리보공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패널은행의 수가 감소할 경우 리보의 변동성은 증가할 수 있음

- 지표금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리보를 계속 사용해야 함
- 리보공시가 종료된 경우 마지막 공시된 리보를 계속 사용해야 할 위험 역시 있으며, 따라서 스왑계약 등의 경우 큰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됨

2. 대체지표 검토 : USD리보 대체금리인 SOFR를 중심으로

▣ 미국과 스위스는 담보 익일금리를, 영국, 유로지역 및 일본은 무담보 익일금리 등을 대체지표로 선정

- 대체금리 선정기준은 유동성이 높은 거래에 기반한 시장금리로서, 리보처럼 호가기반 금리 및 Fed Funds Rate(FFR)과 같은 정책금리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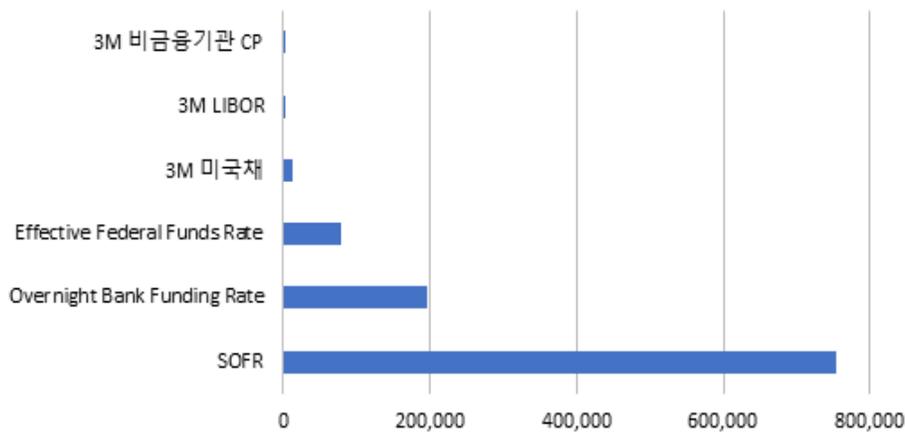
- * FFR : 美 예금은행간 1일 무담보 달러자금 차입금리로서, 연준은 목표금리구간 설정 및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IOER) 등으로 FFR 금리를 통제함
- * 연방은행은 목표금리구간 내 특정금리를 IOER로 지정하면 연방기금 차입수요 은행들은 IOER 이상의 금리를 지급해야 차입이 가능해짐

▣ 미국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한 리포(RP)의 거래량 증가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대체금리로 SOFR를 선택

- * SOFR는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의 약자로서 1일 미국채 리포거래 금리를 반영하는데 미국채를 담보로 한 1일 동안의 현금차입 비용임

〈美 자금시장 내 종류별 일 기초거래량〉

(단위 :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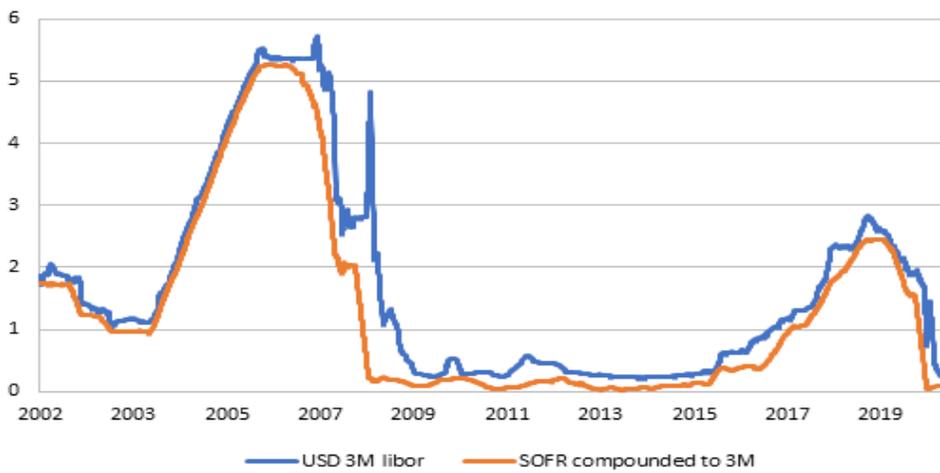
※ 자료 : Newyorkfed.org(2017년 6월 기준)

- 뉴욕연준에 의해 2018년 4월부터 매 영업일 공시되고 있는 SOFR의 일일 거래량은 1조달러에 달하며 다양한 시장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최소 2,000개 이상의 거래 기관이 있으며 시장집중도 측정치인 허핀탈-허쉬만 지수는 600이하로서 경쟁적 시장구도임
 - 2018년 5월 SOFR의 1월물, 3월물 선물거래가 개시되었고, 동년 10월 SOFR의 이자율교환거래(IRS)가 시작됨

- 1일 시장금리인 SOFR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SOFR를 기초금리로 하는 금융거래는 일별 금리의 복리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여 변동성은 제한
- 실제 3개월 복리평균 SOFR는 3-month 리보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임
 - 2019년 9월 RP(리포)금리가 급등하며 SOFR금리 역시 급등하였으나, 실제 3개월 복리평균 SOFR는 3-month 리보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임

〈3개월 USD리보 및 3개월 복리평균 SO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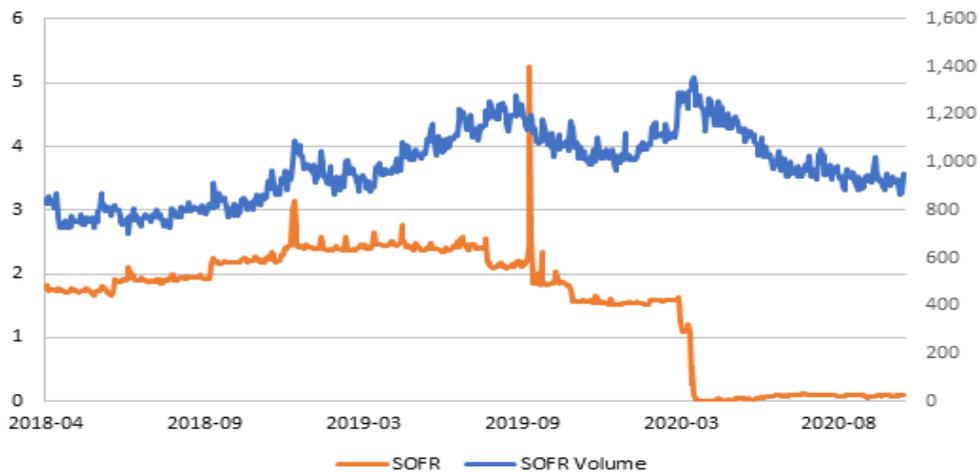
(단위 : %)



※ 자료 : Bloomberg

〈SOFR의 금리 및 거래량 추이〉

(단위 : %, \$billion)



※ 자료 : Newyorkfed.org, 기간 : 2018년 4월 ~ 2020년 10월

- 대체금리로서 FFR과 같은 정책금리가 제외된 사유는 시장 거래규모가 작고 연방 주택은행이 주요 연방기금 판매자가 되면서 대표성이 약해졌기 때문임

- 금융위기 이후 Fed Funds 등 은행간 거래는 감소했으며, 무위험에 가까운 미국채 담보의 리포(RP)는 거래량이 증가
- IOER 수취대상이 아닌 연방주택은행은 초과준비금을 IOER 하회금리로 대출하며 은행들은 동 차입금을 초과준비금으로 예치하여 금리차익을 얻는데, 이는 Federal Funds Market 고유의 단기자금차입 거래가 아님
- 美 대체금리 추진단인 ARRC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 SOFR를 사용할 것과, 리보 기재가 필요한 경우 향후 리보 사용이 어렵게 되면 SOFR를 사용할 수 있게끔 대체(Fallback) 조항을 만들 것을 권고
- ISDA는 2020년 10월 23일 ISDA 표준계약서의 대체(Fallback)조항 편입을 발표했으며, 3개월 이후인 2021년 1월 25일부터 ISDA계약을 사용 중인 모든 파생상품 거래참가자에게 적용됨

3. 대체금리 관련 국내 추진경과 및 준비사항

-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2019.6월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을 설립하여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 및 CD금리 개선을 진행 중임
- 외화스왑거래 등을 위해 리보가 사용되는데 기존 5개 통화 리보 및 고유 지표 금리는 해당국의 신규 및 개선지표로 대체될 예정임
-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의 지표금리로 CD금리가 쓰이는데 신규지표금리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現 호가방식의 CD금리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 중
- 리보와 같이 CD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는 지속 제기되었음
- 지표물인 91일물 CD의 발행 및 유통량이 적어 금리는 경직성을 보여 왔고 자금난에 있는 특정은행의 CD발행일에 큰 상승(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
 - CD 발행량은 자금수요로 2005년부터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단기유동성 증가와 2012년 예대율 규제 관련 CD가 예금에서 제외되면서 급격히 감소
- 2012년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심해지며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됨
 - CD금리는 8개 시중은행 발행 CD를 기반으로 증권사들이 발행 및 유통금리, 단기 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제출한 호가기반으로서 주관개입의 여지가 큼

- 소매금융의 경우 2010년부터 CD금리가 코픽스로 대체되었으나, 이자율 스왑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CD를 지표금리로 사용
- 또한 CD금리는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변동횟수는 26번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단 9번만 변동했으며, 동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8 영업일동안 연속하여 불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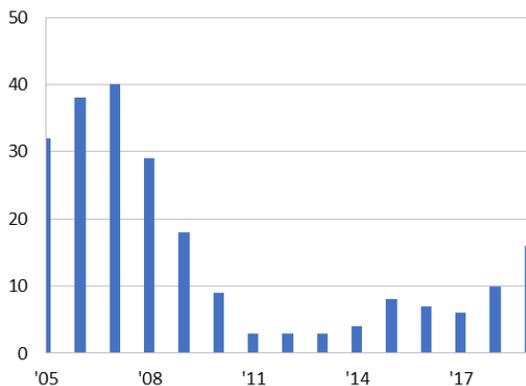
〈SOFR, USD 리보, CD금리 비교〉

구분	SOFR	USD 리보	CD금리(91일)
리스크	무위험	대형은행 신용위험	시중은행 신용위험
담보	미국채	없음	없음
만기	1일(overnight)	1일~1년	91일
거래량(1일)	1조 USD	5억 USD	-
시장참가자	2,000개 이상 기관	16개 대형은행	8개 시중은행

※ 자료 : 한국은행(Financial Markets in Kore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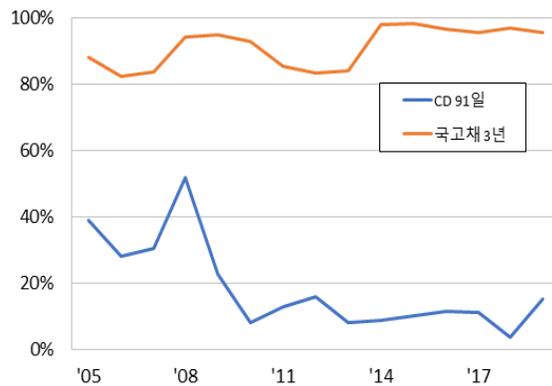
〈연도별 시장성 CD 잔액〉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

〈국고채 및 CD91일물 변동성〉



※ 자료 : 금융투자협회(변동성=변동일/총영업일)

■ 시장참가자들은 무위험지표금리와 개선된 CD금리 중 대표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

- 무위험지표는 시장참가자들의 조언과 검증과정을 거쳐 은행간 초단기 무담보 차입거래 금리인 콜금리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중 선택될 예정
- 공사가 유동화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 목적으로 체결하는 IRS계약은 고정 금리지급·CD금리 수취 구조로서 지표금리변경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4. 시사점

- **신규 지표금리는 거래량, 유동성, 시장참가자의 다양성 및 거래 분산도, 리스크 유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국내 복수지표 도입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 거래 특성에 기반한 적합한 지표금리 선택이 필요**
 - 복수지표 체제를 통해 각 거래에 적합한 금리선택이 가능해지며, 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사료됨
 - 리보 또는 CD금리 등의 지표금리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내부 모델링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사업환경에 맞는 보다 적합한 지표금리 선택이 필요

윤 성 훈(리스크관리부)

〈참고문헌〉

- LIBOR 대체금리 선정 경과 및 향후 전망(2018년 10월, 산업은행 김은서)
- 국내 단기금융시장 금리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2013년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
- 중앙은행 홈페이지: 뉴욕연준(newyorkfed.org/arrc), 한국은행(bok.or.kr)
- Odd Lots(Podcast, 2020.5.31. ~ 6.4. 방송분)
- Bloomberg News, 로이터 통신(reuters.com)

 주택금융 Insight 제2020-21호(11.12)

발행인	이정환
편집인	권오훈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12층)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신고번호	부산남,다00001(2019.8.16)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